주요개념 : 한국적 간호, 간호중재 개발, 대체요법

한국적 간호중재 개발 : 대체(보완)요법

신 경 림*

Ⅰ. 서 론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교육, 산업부문과 의료부문의 개방이 이루어져 외국 유수의 의료기관이 최첨단 의료장비를 앞세워 우리나라로 진입해 들어올 전망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간호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숙고해야하며, 나아가서 학문발전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동적인 노력과 한국적인 간호중재 개발을 통한 독창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학은 인간을 이해하고 건강을 증진, 회복시켜 삶의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경감하며 생명을 보존시키는데 필요한 원리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을 이해하고 간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삶의 방식, 사상, 자연 환경 등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우리민족만이 가진 체질, 지리, 환경과 사회형태로서의 타민족과는 구별되는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와 사회의 산물로써 사상이 전개되므로 전통사상 속에 담겨있는 간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세기 말 서구 문물의 유입과 더불어 제도적인 간호가 도입되었고, 그 이후, 서구문화에 뿌리를 둔 간호에서 성장발달해 왔으므로 서구의 자연 과학적 파라다임 아래 서양간호에서 수행되어진 중재를 되새김 없이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오래 전부터 아픈 사람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프지 않은 사람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통적인 의학과 간호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유기체적이고 전인적인 생명관을 중시하는 Alternative Therapy(대체요법)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요법은 서양의학이 전파된 이래 천대시 되어왔고 노년층 또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으로 취급해왔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 연구를 통하여 효율성이나 요법의 근거를 백안시 해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문화에 축적되어온 경험이나 습관에서 나온 건강관행이나 민속요법 등은 '비과학적' 또는 '비체계적'이라고 하여 거의 임상에서조차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한국간호는 서구에서 개발된 간호중재만을 고집하면서 양적인 발전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흐름을 멈추고 우리를 뒤돌아 봐야할 시간이다. 그리고 한국간호의 독창성을 개발, 발전시켜 세계화에 발맞추어야 할 시점에서 그 동안 무시되어왔던 우리문화 속의 간호-(대체)요법을 재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한국 의료 문헌에 막대하고 영향을 끼친 내경의학 및 사상의학이론(동양사상)에 근거하여

* 이화여대 간호과학대학 부교수 (krshin@mm.ewha.ac.kr)

개발중인 간호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계승되어온 대체요법을 확인하여 간호교육, 연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간호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료문화에 젖어든 동양사상의 틀을 전통의료(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등에 나타난 이론적 기초를 고찰한다.
2. 개발중인 한국적 간호이론을 이해한다.
3. 한국적 간호중재개발을 위해 대체요법을 확인한다.

Ⅱ. 본　　론

본 장에서는 한국의 문화에 젖어든 의료의 틀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사상에 근거하여 개발중인 간호이론과, 개발중인 간호이론에 밀접히 연관되는 간호중재로써의 대체요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의 간호학의 철학적 배경을 고찰해보면, 20세기 후반부부터 교육이 시작되었고, 서양의 현대철학 즉, 금욕주의, 낭만주의, 합리주의, 비관주의 실존주의 등의 영향을 받은 서양 간호이론가들에 의해 간호철학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간호의 주요개념을 보면, 인간, 환경, 간호건강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 이론의 중심의 체계를 분류해보면 욕구이론(Henderson, Abdella), 상호작용중심(Peplau, Olando, Erickson), 체계중심(Johnson, Roy, B. Neuman), 에너지 중심(Rogers, Parsey, M. Neuman), 그리고 인간중심이론(Watson, Paterson & Zderal, Benner)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간호실무는 간호이론을 바탕으로 나누고 간호이론은 철학을 근거하여 개발된다. 그럼 한국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한국간호실무는 무엇이고 그 실무는 어떠한 이론을 근거로 개발하고 또한 그 이론은 어떤 철학을 근거하여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1. 한국의료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동양사상

본 절에서는 한국의료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도교적인 양생사상과 치료의학사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동의보감에서 제시한 음양오행, 기 이론과 동의수세보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상체질론을 이론의 틀로 보았다. 따라서 '간호(Nursing)'의 주개념으로 총체적인 우주관, 인간관 그리고 간호관으로 보았으며, 다시 인간관을 세분화하여 신체관, 생명관, 건강관, 질병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간호중재는 면면히 이어온 민간 민속의 실상을 눈 여겨 보고 이를 간호이론에 끌여들여 대체요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 의료 문화는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내경의학과 또 한편 불로장생술을 확대 적용하는 도가적 이론이 있는데, 이 두 줄기 중에서 한국 의료문화의 특색은 도가적 장생이론을 수용하였기 보다는 내경의학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감이 없지 않다. 이같은 관점을 한국문화가 대륙문화를 수용함에 있어서 도가적 취향보다는 유가적 전통을 선호하였다는 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줄기가 전혀 상호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발전해 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륙의료문화가 장생술로 기울어져 있었을 때에는 그 영향이 심히 클 때도 있었지만 이런 일들은 한때의 유행에 불과 하였고 다시 그 큰 줄기는 <황제내경>을 비롯한 동양의학의 고전에 입각하여 내경의학의 기초의학위에서 <동의보감>으로 정리되었으며, 나아가 우리고유의 의료사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의수세보원>으로 까지 발전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같은 한국의학사상은 동양의학 사상 특히 대륙의학 사상과는 그 궤적을 약간 달리하며 오늘날 전통적 한국간호 중재요법 개발위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림 1> 간호 중재 모델

1) 음양오행이론 : 생성과 발전의 형이상학

① 음양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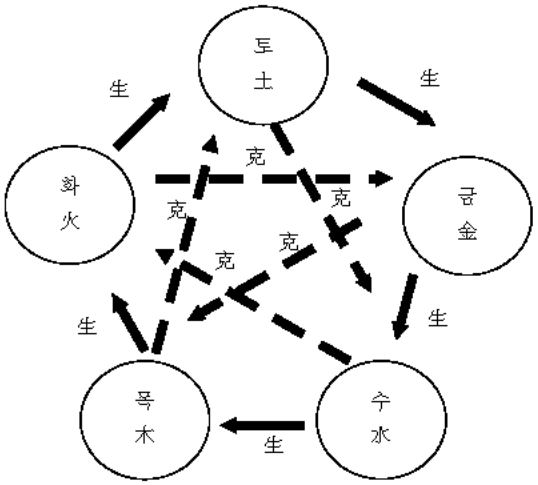
음양이론은 우주삼라만상을 음·양의 2분법 적으로 분류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양(陽) 이론		음(陰) 이론	
(원리)			
1. 음, 양은 서로 짝을 이루어 순화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2. 음, 양은 곡선개념이다.			
3. 음, 양은 시(始), 종(終)이 없으며 무한히 순환한다.			
4. 음, 양은 합쳐서 하나이면서 상대적이다.			
5. 양중에도 음, 양이 있고 음중에도 음, 양이 있다.			
① (자연현상)			
하늘	天	땅	地
해	日	달	月
봄	春	가을	秋
여름	夏	겨울	冬
불	火	물	水
낮	晝	밤	夜
밝음	明	어둠	暗
더움	暑	차가움	寒
마름	燥	습할	濕
따스함	溫	서늘함	凉
동쪽	東	서쪽	西
남쪽	南	북쪽	北
② (기와 질):기오 질은 形(형)을 중심으로 형이상학적 측면을 氣(양)라 하고 형이상학적 측면을 質(음)이라고 한다.			
굳셈	剛	부드러움	柔
위	上	아래	下
오름	升	내림	降
뜸	浮	가라앉음	沈
빠름	數	느림	遲
가벼움	輕	무거움	重
맑음	淸	탁함	濁
둥금	圓	모남	方
불룩함	凸	오목함	凹
홀수	奇	짝수	偶
먼저	先	뒤	後
밖	外	안	內
나아감	出	들어감	入
앞으로감	進	물거나감	退
열림	開	닫힘	閉
흩어짐	散	모임	集
움직임	動	고요함	靜
③ (인간)			
남	男	여	女
남편	夫	아내	婦
숫컷	雄	암컷	雌
젊음	少	늙음	老
낳음	生	죽음	死
상체	体	하체	体
심장	心	간장	肝
신장	腎	폐장	肺

② 오행이론

오행이론은 음양을 보다 구체적으로 목, 화, 토, 금, 수로 나누고 이들간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사물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상호관계는 상극과 상생이론으로 표현한다.

오계(五季)	춘(春)	하(夏)	계하(季夏)	추(秋)	동(冬)
오용(五用)	생(生)	장(長)	화(化)	수(收)	장(藏)
오행(五行)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오기(五氣)	풍(風)	열(熱)	습(濕)	조(燥)	한(寒)
오방(五方)	동(東)	남(南)	중앙(中央)	서(西)	북(北)
오색(五色)	청(青)	적(赤)	황(黃)	백(白)	흑(黑)
사신(四神)	청용(青用)	주작(朱雀)		백호(白虎)	현무(玄武)
오상(五上)	인(仁)	예(禮)	신(信)	의(義)	지(智)
오미(五味)	산(酸)	고(苦)	감(甘)	신(辛)	함(鹹)
오장(五臟)	간(肝)	심(心)	비(脾)	폐(肺)	신(腎)
오음(五音)	각(角)	치(치)	궁(宮)	商(상)	우(羽)
오음(五音)	아(牙)	설(舌)	순(脣)	치(齒)	후(喉)
한글	ㄱ	ㄴ	ㅁ	ㅅ	ㅇ
생수(生數)	3	2	5	4	1
성수(成數)	8	7	10	9	6



<오행의 특성>

오행의 특성을 고찰함에 있어서 '오행'이란 우주 내의 모든 생명의 신비가 운행되고 있다. 다섯가지 양태론이름인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수 (水) - 생명의 원천으로서 만물의 근원이 되어 만물을 생장시키는 원동력으로 기와 질로 나눠볼 때에 '氣'에 속한다. 기본적으로는 '음'에 속한다.

② 목 (木) -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강하여 강유를 겸하고 있으나 外柔內剛하고 기본적으로 '양'에 속한다.

③ 화 (火) - '수'를 건조시키면서 생명을 화려하게 만드는 '氣'로서 기본적으로 '양'에 속한다.

④ 금 (金) - 겉은 단단하나 속은 부드러워 이것 또한 강유를 겸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음'에 속한다.

⑤ 토 (土) - 오행의 상호발전(상생,상극)의 바탕으로써 陰陽剛柔를 모두 겸비하고 있다.

<오행의 관계>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는 각종 사물사이에는 상호 정상적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상생과 상극의 관계가 존재하여 자연계가 하나의 연결된 전체이다(김완희, 1992).

상생관계란 오행간에 서로 낳고 낳아 무궁히 순환하는 관계로써 즉, 물로 인해서 초목이 자라고(水生木), 나무가 마찰되서 불이 일어나며(木生火), 소진된 재가 쌓여 흙을 이루며(火生土), 땅 속의 물질이 융합되서 금속이 되며(土生金), 열매가 맺히면 물이 생기고(金生水), 응고된 것이 풀리면 물이 흐르는 이치로 주기과정이며 차례대로 선이 후를 밀어주고 生氣를 자의로 주면서 자신은 泄氣하게 된다(박기성, 1993). 오행의 운행을 상생적 측면에서 살필때에 식물의 성장과정에 비유해보면 물기를 동반하고 있는 씨앗은 '수'자체이며 이 씨앗이 땅속에 심어서 나무로 자라는 것은 '목'이며 나무가 일정한 기간동안 지나서 꽃이 피는 것은 '水氣'가 나무의 '質'을 통해 끊임없이 운행된 결과로, 이것이 '火'이며 이 꽃의 발랄

한 기운이 다시 땅으로 떨어져 '土'가되며, '土'에서 다시 떨어진 꽃의 배꼽에서 열매가 맺어지니 이것이 단단한 새로운 씨앗으로서 '金'이다. 그런데, 이 씨앗은 반드시 다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 무르녹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불기운을 지니기 때문에 '金'에서 다시 '水'로 끊임없이 운행 생성하는 것이다.

상극관계는 오행간의 상호제약을 통해 억제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구체적으로 물은 불을 끄고(水克火), 물은 금을 녹이고(水克金), 금은 나무를 끊고(金克木), 나무는 흙을 파고들며(木克土), 흙은 물을 가두어(土克水) 서로를 견제하고 조절한다. 이 때에 주목할만한 사실은 수→목→화의 상생과정에서 보면 '수'는 '화'의 할아버지요, '화'는 '수'의 손자와 같다. 그런데 '화'가 '수'를 극복함은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木克土, 土克水, 金克木도 같은 원리로서 孫이 祖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극작용은 상대 오행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氣 이론- 生命論的 科學

서양의 과학적 우주관과는 달리 동양의 우주관은 오히려 비물질적인 관점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동양에서는 물질이전의 추상적 개념인 氣를 우주의 근본이라 보았다. 모든 만물은 하나의 氣에서 비롯되었으며, 氣가 응축된 것이 고형적인 물체가 되었고, 氣가 흩어진 것이 무형적이 비물질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氣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의 원천은 리(理)로 보았는데 이는 이론바 불교에서 말하는 "한 마음이 일면 모든 존재가 일며 한 마음이 멸하면 모든 존재가 멸한다"(心生則 種種法生 心滅則 種種法滅)는 말과 같다. 비록 이기 일원론이나 이기 이원론이 성리학의 주요 쟁점이 되기는 하였으나 중요한 사실은 동양에서는 결코 물질과 비물질은 분리해서 보지 않고 오히려 물질 이면에 있는 비물질적인 속성은 더욱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향이 물질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은 속된 것으로 경계하였으며 비물질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현상계에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물질의 상호작용은 그 이면에 있고 비물질적인 氣나 理의 작용에 따른 것이라고 본 것이다.

즉 우주의 삼라만상(森羅萬象)을 하늘, 땅, 사람으로 크게 구분 짓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그 하나의 근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오직 하나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다만 이 세가지 구성요소들 중 극성(極性)의 관점에서 보면 음양층(陰陽층)으로 진성(眞性)의 관점에서 보면 성명정(性命精)으로, 물성(物性)의 관점에서 보면 정기신(精氣神)으로 보았는데 이중에서 특히 氣라는 개념은 '우주의 모든 곳은 가득 채우고 있는 원천적인 실체'라고 보았던 것이다.

유가의 고전인 <논어(論語)>에서는 주로 '생활 속의 氣'를 들어 말하였다. 맹자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말하였다. 그러나 이 호연지기야말로 천지 안에 가득 찬 氣로서 만물이 천차만별로 다른 까닭도 각기 그들이 지니고 있는 氣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표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즉 인간은 천지의 가장 빼어난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는 크게 구분돼는 것이며, 같은 인간이라도 情, 濁, 貴, 賤의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도 각각 타고난 氣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五行秀氣論도 알고 보면 맹자의 浩然之氣설 에 근원을 둔 것이다. 한편 老子는 氣는 만물생성의 원천이라 하여 만물의 생성과 멸성을 無→有, 有→無로 여김과 동시에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곧 有와 無로 넘나드는 일관된 실체는 겉으로 나타난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면에 있는 비물질적인 요소로서의 氣라고 보았다. 그리고 氣는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될 수 없고 비물질적인 요소이기는 하나 그래도 氣로 추상할 수 있는 것은 '물'이라고 여겼던지 생명의 근원을 '물'이라고 봄과 동시에 '上善若水'라 하여 물의 공덕을 찬양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만물의 생명에 일관된 것이 氣일진데 인간의 생사도 또한 氣의 離合集散일 뿐이며 나아가 인간의 생명 자체도 순수정미한 정기가 몸 안을 끊임없이 유동하고 순환하는 '氣의 활동'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때문에 생명을 이끄는 氣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면에서 파악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크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

몸의 올바른 기(正氣)는 특정한 형태로 분화되어져 연관되기 이전의 기로서 원기(선천적으로 타고난 기), 즉 개인의 유전적 소인을 결정하며 신에 저장된다. 곡기(음식이 소화되면 얻어지는 기), 그리고 자연대기의 기(공기: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옴)로서 이 세 기가 혼연일체되어 온 몸에 고루 퍼지는 정상적인 기를 의미한다.

몸은 기로 가득 차 있으며 기가 부족하거나 균형이 무너지면 병이 되며, 즉 기는 생명체에 충만해 있으면서 그 활동을 영위하게 하는 생명 에너지를 말한다.

몸 안에 혈기(血氣)가 끊임없이 순환하고 빠짐없이 고루 퍼짐으로써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혈기는 「기혈」이라고도 불리는 사실을 보면, 血과 氣를 합한 호칭이다. 그러나 양자가 완전히 별개의 존재는 아니다. 다만 양

적 측면에는 '氣'로 음적 측면은 '血'이라 했을 따름이다.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가 되면 그 정수인 순수정미한 기가 얻어진다. 그 기가 조화되고 변화되어 빨갛게 된 것이 혈이라는 것이다. 곧 혈과 기는 원래가 하나인 것이지만 그 나타나는 방법을 달리하며, 몸 안에서는 음양의 관계(血이 陰, 氣가 陽)에 있으면서 서로 맞버티면서 작용한다고 생각되었다.

혈은 피부를 째면 나오는 혈액을 말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血의 생리작용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런 언급이 없다. 중국 의학에서 血과 氣는 「영(營)」과 「위(衛)」의 二氣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야기되어 왔다.

營이란 음식물에서 얻어지는 정기 가운데에서 영양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경락 속을 전전하여 전신을 돈다. 衛도 음식물에서 얻어지는 정기이기는 하지만, 그 성격은 날렵하고도 움직임이 매끄럽다. 그래서 경락의 바깥을 달리면서 외사를 막기도 하고 체온과 땀샘의 조절을 관장한다.

營과 衛는 血과 氣와 마찬가지로 음양의 관계에 있다. 나중에 영기는「영혈(營血)」이라고도 불려 血과 동일시되기도 했다.

인체의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혈 영위(氣血營衛)는 경락을 통해 몸 안을 빠짐없이 순행한다. 그 속도는 하루에 50주행을 한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관념적인 숫자라고 생각되기가 쉽지만, 하늘의 리듬과 정확하게 상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영추≫<오십영편(五十營篇)>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기혈영위가 도는 몸 안의 통로를, 곧 경락이라고 한다.

經(經脈)이란 신체의 세로 방향으로 흐르는 12개의 간선과 그 별개의 통로와 기경이라고도 불리는 8개의 맥을 포함한 것의 총칭이다.

그리고 絡(絡脈)이란 경맥을 옆으로 연락하는 15종의 지류와 그 밖의 혈락·세락·손락 등의 더욱 미세한 지류를 포함한다. 혈락과 세락은 몸거죽에 떠서 보이는 표재성의 혈관을 가리켜 부르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경락은 현대 의학의 해부학이 가르치는 맥관계나 신경계와는 성격이나 분포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것들은 아무리 해부해도 아직껏 확인할 수가 없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이다.

보통 경락이라고 하면 12경맥을 가리킨다. 12경맥은 손발의 3음 3양을 위에 붙이고 불리는데, 12장부와 배합되어 손발의 끝에서 한 가닥으로 이어져 있다.

≪황제내경≫속에도 경락에 대한 갖가지 견해가 뒤섞여 있어 거의 완성된 모습은 ≪영추≫의 <경맥편>에서 볼 수가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경락이 달리는 몸 거죽 위에는 많은 침자리가 있다. 침자리란 생체의 반응점인데 침놓기·뜸뜨기의 목표가 되는 점이다. 그 수가 365 또는 366이라고 고전에는 기술되어 있다. 12경맥이 12개월에 빗댄 것처럼 1년의 일수에 빗댄 수에 지나지 않는다. 침자리는 나중에도 여러 가지 부위에서 발견되는데, 기혈을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수가 된다(김영훈. 1992).

즉, 간호이론의 틀을 제시할 수 있는 사상의 큰 틀은 음양오행과 기 이론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3) 四象体質論 - 生命의 네 가지 類型

이상과 같이 동양에서 氣의 개념은 '원천적인 실체'로 보았으며 또 氣의 성질은 텅빈 공간에서는 자유로운 특성을 가지지만 어떤 물체에 담겨지게 되면 그 물체의 특성에 따라 변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만물은 각기 고유한 氣의 특성을 가지고 상호간에 氣순환과 교환에 의해 긴밀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땅에는 地氣가 있고 하늘에는 天氣가 있으며 物에도 각각 고유한 人氣(物氣, 즉 생체기)가 있다. 그리고 氣의 운동에는 일정한 법칙과 흐름의 통로가 있어 인체에는 경락(經絡)이 있으며, 땅에는 지맥과 수맥이 있고 물체에도 나름대로의 통로가 있다. 그러므로 색상과 모양 또는 재질에 따라 다양한 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기는 神과 함께 작용하는데 신은 바로 정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만물은 생명체이든 무생물체이든 정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고유한 氣体系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가 완전하며 서로서로가 같은 원리에서 움직이는 단일체-유기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의 수세 보원>의 다음과 같은 말을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는 오직 하나이다.
氣는 만물을 형성하는 기틀이 되고 만물을 낳고 기르는 조화(造化)의 근본은 원(元)이라 하고, 덕을 세워서 이 원(元)을 보전하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 한편, 이것을 합쳐서 말하면 태극(太極)이 되고, 나누어서 말하면 天, 地, 人 삼극(三極)이 된다. 태극이 되고, 양의가 사상(四象)을 낳은 것은 삼극이 다 같은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사시(四時)가 있고, 땅에는 사방(四方)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상(四象)이 각각 있다. 그리하여 저마다 소장(消長)하고 차고 빈 이치와 점점 변하여 마침내 바뀌지는 각각 다른 기운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보존되고 살아나가는

○ 폐가 크고 간이 작은 자 - 태양인(太陽人) 肺大而 肝小者
간이 크고 폐가 작은 자 - 태음인(太陰人) 肝大而 肺小者
지라가 크고 콩팥이 작은자 - 소양인(少陽人) 脾大而 腎小者
콩팥이 크고 지라가 작은자 - 소음인(少陰人) 腎大而 脾小者

○ 사람의 오장 중에 心은 중앙의 태극이요 오장의 폐, 지라, 간, 콩팥은 사방을 상징하는 사상(四象)이다. 중앙의 태극은 성인(聖人)의 태극이 높이 여러 사람의 태극 위에 솟아 있고, 사유의 사상은 성인의 사상이 여러 사람의 사상과도 조리가 통한다.

○ 태양인은 슬퍼하는 성품이 멀리 사라지지만, 노여워 하는 심정이 몹씨 급하다. 슬퍼하는 성품이 멀리 사라지면 기운이 폐로 흘러 들어가서 폐는 더욱 성해지고 노여워하는 심성이 몹시 급하면 기운이 간을 격동시켜서 간이 더욱 깍이게 되니 태양인의 장부가 폐는 크고 간은 작게 형성되는 것은

○ 소양인은 노여워하는 성질은 넓게 가지지만 슬퍼하는 성정이 몹시 급하다. 노여워하는 성품을 넓게 가지면 기운이 지라고 흘러 들어가서 지라는 더욱 성해지고 슬퍼하는 성정이 몹시 급하면 기운이 콩팥을 격동시켜서 콩팥이 더욱 깍이게 된다. 소양인의 장부는 지라는 크고 콩팥은 작게 형성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태음인은 기뻐하고 성품이 넓게 펴지지만 즐거워하는 성정은 몹시 급하다. 기뻐하는 성품이 넓게 펴지면 기운이 간으로 흘러 들어가서 간은 더욱 성해지고, 즐거워하고 성정이 몹시 급하면 기운이 폐로 격동시켜서 폐는 더욱 깎이게 된다. 태음인의 장부가 간은 크고 폐가 작게 형성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소음인은 즐거워하는 성품이 깊고 굳으며 기뻐하는 성정이 몹시 급하다. 즐거워하는 성품이 깊고 굳으면 기운이 콩팥으로 흘러 들어가서 콩팥은 더욱 성해지고 기뻐하는 성정이 몹시 급하면 기운이 지라를 격동시켜서 지라는 더욱 깎이게 된다. 소음인의 장부가 콩팥은 크고 지라는 작게 형성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삶의 이치를 밝혀 보면 결국 오직 하나인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모양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이치로 보면 또한 하나인 것이다. 즉 양의, 삼극, 사상, 오행의 성품이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그 낳고 기르는 원(元)의 이치는 하나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동의수세보원>의 저자 이제마(李濟馬 1838~1900)는 사람이 날 때부터 타고난 장부(臟腑)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인간의 체질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니 그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한국적 간호이론개발

서양의 간호이론 정립을 보면 인간, 환경, 건강, 간호의 4가지 metaparadigm으로 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음양오행과 기의 이론을 근거로 사상체질학 간호의 metaparadigm을 나누면 크게 우주관, 인간관(몸, 생명, 건강, 질병), 그리고 간호관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음양오행, 기 사상체질 이론을 받침 한 동의보감은 동양의학의 주저서이지만 그 내용은 전통적으로 의료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보통사람들이 공유하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상식으로 작용한 문화적인 사고의 체계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동의수세보원>은 인간의 신체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여 신체자체를 일단 음양오행의 이론에 입각해 사상(소음,태음,소양,태양)으로 분류하고, 질병치료는 물론, 건강에 대한 이해까지도 이 사상체질에 따라 인한다고 보는 동양의학의 결정이다. 주로(동의보감)과 (동의수세보원)을 근간으로 하여 한국인의 삶의

양태 속에 이미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간호의 주개념을 기술하고자한다.

1) 우주관: 陰陽의 造化

大宇宙	우주관 천지 운기 - 陰陽의 造化 천 : (-) 순양 건 만물자시 지 : ( ) 순음 곤 만물자생
小宇宙	인간관 1) 신체관 神形 - 陰陽의 結合 지수화풍 기. 형. 질 음. 양 2) 생명관 精·氣·神 - 陰陽의 循環 3) 건강관 양생 - 陰陽의 調和 4) 질병관 - 陰陽의 不調和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런 변화는 원인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주기성을 갖는 내적 역동성에 의하여 규칙적인 변화를 한다. 즉, 사계절이 매년 나타나고 인간의 삶의 과정도 생, 자라고, 노, 병, 사의 과정을 거침을 의미한다. 즉, 우주는 그물처럼 상호연관된 사물과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와 변화 속에서의 인간(존재)을 천체유형(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천체적 유형인식을 강조하는 사상이 동양사상의 주를 이룬다.

대우주인 우주관과 소우주인 인간관의 관계를 孫眞人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사람은 우주에서 가장 靈貴한 존재다.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요, 발이 모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하늘에 四時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四肢가 있고, 하늘에 五行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五臟이 있다. 하늘에 六極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六腑가 있으며, 하늘에 八風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八節이 있다.

하늘에 九星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九竅가 있으며, 하늘에 十二時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十二經脈이 있다. 하늘에 二十四氣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二十四兪가 있으며, 하늘에는 三百六十度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三百六十骨節이 있다. 하늘에 日月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眼目이 있고, 하늘에 晝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寤寐가 있다.

하늘에 雷電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喜怒가 있으며 하늘에 雨露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滌淚가 있으며 하늘에 陰陽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寒熱이 있다.

땅에 泉水가 있듯이 사람에게 血脈이 있고, 땅에 草木과 金石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毛髮과 齒牙가 있으니, 이런 것은 모두 四大五常이 묘하고 아름답게 〃周和되어 成立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천지를 닮은 天地秀氣의 결정으로써 인간자체도 자연의 조화로 규정지으며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간호의 주체와 환경으로 보며 건강은 자연과의 조화라고 볼 수 있다.

2) 인간관 - 陰陽의 〃周和

본 절에서는 인간을 신체관, 생명관, 건강관, 질병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우주는 음·양으로 나뉘어져 있고, 목, 화, 토, 금, 수 오행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으며, 사람의 몸은 간, 심장, 비장(지라), 폐, 신장의 오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 내는 풍, 한, 서, 습, 조, 화의 육기가 변화를 거듭하고 있듯이 몸 안에 방광, 쓸개, 삼초, 위, 소장, 대장의 육부가 있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오장과 육부가 균형을 이루면서 움직일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신체의 신은 몸이다. 몸은 형체를 갖춘 육체로서 신체를 의미하며, 우리의 신체는 그리 유형한 형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대기를 호흡하고 음식을 소화하고 만사를 사고하는 무형한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유형한 형태와 무형한 기능이 하나로 조화된 생명체이다.

'신'이란 신체라는 생물학적인 개체인 동시에 소우주라는 철학적 존재이기도 하며, 이 생명체를 움직이는 힘이 곧 생기이다.

(1) 인간의 신체관(身體觀) : 陰陽의 結合

인간은 누구나 양인 아버지와 음인 어머니의 힘을 빌려 세상에 태어나고 동시에 땅과 하늘의 기운을 받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신체관을 크게 성혜방의 발달주기와 석씨론과 상양자의 신체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聖惠方>에 이르기를 ;

天地의 精氣는 萬物의 形體로 化하는데,
아버지의 精氣는 魂이 되고, 어머니의 精氣는 魄이 된다.
孕胎한 첫 달에는 牛乳의 酪과 같이 凝結해 있고
둘째 달에는 작은 과실과 같은데, 그 과실이 오얏만 하고
세째 달에는 사람의 形象이 이루어 지며
네째 달에는 男女로 분별지어지며
다섯째 달에는 筋肉과 뼈가 생기며

여섯째 달에는 터력이 생기고
일곱째 달에는 魂이 놀면서 오른손을 움직이고
여덟째 달에는 魄이 놀면서 왼손을 움직이고
아홉째 달에는 세 번 몸을 굴리고
열번째 달에는 꽉 차서 어미와 자식이 分離된다.
달이 넘어서 낳는 아이는 富貴와 壽를 겸하고
달이 모자라서 낳는 아이는 貧賤하고 夭死한다.

즉, 인간의 수명은 혼(양)·백(음)으로 음·양과의 화합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釋氏論>에 이르기를 ;신체의 구성은 地水火風 四大가 서로 화합하여 사람의 筋骨과 肌肉을 이룬다.
筋骨과 肌肉은 地에 속하고
精血과 津液은 水에 속하고
呼吸과 溫暖은 火에 속하고
靈明 活動은 風에 속한다.
그러므로 風이 그치면 氣가 끊기고
火가 없어지면 몸이 차가와지고
水가 마르면 피가 말라 버리고
土가 흩어지면 몸이 分裂된다.

이상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성혜방의 발달주기에서도 인간의 존재형성이 기의 이합으로 즉, 아버지의 정기는 혼으로 어머니의 정기는 백으로 화하여 형성됨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신체의 구성요소를 크게 4대 지, 수, 화, 풍에 의한 기운으로 화합, 분열에 의해 이루어짐을 표시하고 있다.

(2) 인간의 생명관 : 음양의 순환

서양간호학에서는 인간관에 '생명관'을 분리하여 서술된 이론은 없다. 그러나 동양의료사상에 의하면 생명관

인간의 생명활동 - 精·氣·神·血 ;血은 神氣의 관장에 의해 활동을 발현하므로 이명동류(異名同類)이며 또한 血은 氣 또는 精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독립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三寶; 精·氣·神	←精 육신을 구성하는 단위개념내지 물질요소로서 유전생식체계를 비롯한 신체의 구성요소와 생리활동을 영위케 하는 物的요소 血·精·津·液을 포함 ①血-위·장관에서 소화·흡수로 얻어진 수곡(水穀)의 정미(精微)를 기초로 하여 생성 ②精- 선천(부모)로부터 품수하여 인체의 오장, 육부, 경맥, 근골, 피모, 뇌수 등의 일체의 조직·기관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생명기원의 물질)과·혈·진·액 등 생명활동을 영위케 하는 생리활동물질은 물론 후천에서 음식으로부터 얻어지는 인체의 영양물질을 총괄. ③津-진액은 체내에 있는 모든 정상체액(正常體液)을 총칭 ④液-타액(唾液)·위액(胃液)·관절강(關節腔)내의 액체성분과 눈물(淚)·콧물(涕)·뇨(尿)·땀(汗) 등 ←氣 모든 우주공간에 들어 있으며, 생리활동과 체외활동을 영위케 하는 근원적 생명력인 선천후기와 후천 원기를 의미함 ①생명현상을 유지·발현케하고 영위하게 하는 생체「에너지」및 생명활동의 원동력을 말하는 동시에 정신활동을 발현케 하는 원동력을 말하며 십이 경락과 360여개의 경혈이 있어 기가 체표밖으로 출입한다. ②기는 내원(來源)에 따라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의 구별이 있다. 선천으로부터 품수한 기를 「선천의 氣」또는 원기라 부르며, 호흡과 음식으로부터 얻은 것을 「후천의 氣」라고 부른다. ③기를 총체적으로 대별할 때 원기(元氣)·영기(營氣)·위기(衛氣)·종기(宗氣)로 구별된다. ←神 신은 인간의 성격, 사고, 판단하는 능력의 기반으로 정신, 정서활동을 포함하는 선천으로부터 받으며 몸전체의 기능을 주관한다. 정신활동의 통제를 포함한 생리기능 즉 기의 순환과 정에서 기의 발생과 수렴을 통제하여 생명현상을 발현함은 물론 음양의생리, 체액대사의 균형을 조절하고 정서활동을 통제하여 희노(喜怒)에 조화되게 하는 등 정신·사유·의식·정성활동과 같은 두뇌활동과 본능적 행동, 귀의 청각·눈의 시각·피부의 냉열통양(冷熱痛痒)감각·손발사지(四肢)의 동작·호흡운동은 물론 외사(外邪)에 대한 방어역할을 하는 정기(正氣)와 중추신경을 비롯한 신경계통의 기능까지 神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며, 인간의 생명관을 정·기·신·혈로 설명하였다.

(3) 인간의 건강관 - 음양의 조화

건강의 원리는 음양의 調和와 形과 정 기 신의 保養에 의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적인 氣의 변화(四氣)와 정, 기, 신이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 사상의학의 창시자인 이제마는 인간의 삶의 과정을 4계절의 기운에 맞도록 해야됨을 그의 광제설에서 묘사하고 있다(아을호. 1993).

> 대체로 사람은 유년기에는 '듣고 보아 지식얻기'(聞見)를 좋아하면서 '공경하고 사랑'(愛敬)할 줄을 아니 마치 봄에 새싹이 돋는 것과 같고, 소년기에는 용맹을 좋아하면서 '싸움에 이길' 줄을 아니 마치 여름에 자라는 묘목과 같고, 장년기에는 '서로 사귀어 정맺기'(交結)를 좋아하면서 '몸 닦고 언행을 삼갈'줄을 아니 마치 가을에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같고, 노년기에는 계책을 좋아하면서 비밀을 간직할 줄 아니 마치 겨울에 감추어두는 뿌리와 같은 것이다.
> 이는 인생의 네 기를 유소장로(幼少壯老)의 춘생(春生)·하장(夏長)·추렴(秋斂)·동장(冬藏)의 사계절로 나누어 비교한 것으로서 인생의 지극한 철리(哲理)가 그 안에 담겨있음을 느끼게 한다. 사람의 삶도 시절의 변천처럼 생장렴장(生長斂藏)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 길을 떠나게 마련인 것이다. 불로장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진대 사계절의 뜻을 체득하고 자연의 섭리에 따를 뿐이다.

동양의학의 최고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는 질병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지만 건강에 대한 정의는 내려져 있다. 그리하여 이 건강에 대한 정의에 따라 질병이란 무엇인가?를 추측할 수 있으니 그 요지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소위 平人(건강인)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脈口와 괄정脈(血氣)를 유통하고 있는 脈)이 사계절에 호응하여 자연계와 인간의 리듬이 서로 호응하여 맥기를 왕래한다. 六經의 脈은 막힘이 없이 흐르며 經脈의 本末(始終)의 차거움과 따듯함이 적정하게 보존되고 육체와 기혈이 조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람을 平人[1] 이라고 한다. <皇帝內經 영추> 終始編

그렇다면 平人이 아닌 사람은 무엇이라 정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곧 不平人이니 氣와 신체와의 관계를 예로 들면 불건강은 곧 병을 유발시키는 사기라 볼 수 있다. 이 사기는 곧 병사라 하는데 병사 또한 四季節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으니 그 내용은 <황제내경> 금구진언론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봄에는 병사가 머리(首)에 있고, 여름에는 병사가 장에 있으며 가을에는 병사가 어깨와 등에 있고 겨울에는 병사가 四肢에 있다. 따라서 봄에는 코가 막혀 통하지 않거나 비출혈이 발생하기 쉽고, 여름에는 가슴부위에 병이 걸리기 쉬우며 늦여름에는 설사나 전염성 설사를 앓기 쉬우며 가을에는 말라리아에 걸리기 쉽고 겨울에는 괄다리가 저리는 냉병에 걸리기 쉽다. 그리하여 감기는 봄의 병, 설사는 여름의 병, 말라리아는 가을의 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황제내경. 금구진언론편 >

또한, 이를 위한 건강양생의 방법에는 동의보감에 의하면, 반운과 복식, 안마와 도인, 건강의 요결(양기, 양신, 양성), 단전 내련법 등을 들 수 있다.

(4) 인간의 질병관 - 음양의 부조화

疾이란 화살에 맞아 상처를 얻었기 때문에 떨거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로 주로 '外傷'을 말하고, 병이란 오장육부에 들어있는 병인(病因)이 점차 밖으로 나타나 아플 수 밖에 없다는 말로 주로 '內병'을 말한다. 그리고 이 밖에도 '患'은 外傷과 內傷을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심인성(心因性)에 의한 모든 병통을 말하여 흔히 '마음의 병'을 뜻한다.

그러나 모든 질병에는 外的인 것이든 內的인 것이든 무엇인가의 原因이 있는 것이며 신비한 것은 조금도 없다. <황제내경>에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풀이를 하였다.

자연계에는 四季와 五行이 있어서 生,長,化,收,藏 활동을 수행하며 寒,暑,燥,濕,風의 氣를 만들어낸다. 사람에게는 五臟이 있어서 五臟의 기가 변화하여 喜,怒,悲,憙,恐, 의 감정을 일으킨다. 즐거움이나 노여움(內因)은 氣를 손상시키고, 추위나 더위(外因)는 육체를 손상시키며, 격하게 怒하면 음 부분을 손상시키며 격하게 기뻐하면 양 부분을 손상시킨다.

역기가 신체의 上部에 결집하면 경맥이 충만하고 精神이 육체에서 이탈하게 된다. 감정이 지나치거나 寒暑

1) 음양의 조화로 인하여 기혈이 막히지 않고 精·氣·神3보가 온전한 사람을 平人(건강인)이다.

의 道가 지나치면 생명은 安定을 잃게 된다.

<황제내경 소문 >

모든 질병은 風雨, 寒暑, 淸濕(건조와 습기), 喜怒에 의해 생긴다. 기쁨이나 노여움의 감정이 도가 지나치면 臟(부)를 손상하고 풍,우는 신체의 上部를 건조한 기운이나 습한 기운은 신체의 하부를 손상한다.

<황제내경>百病始生編

그리고 이와같은 주장은 <여씨춘추>진서편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害를 피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진한 단맛이나 쓴맛, 신맛, 매운맛, 짠맛이 다섯가지 맛을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生命에 해가 된다. 격한 기쁨이나 노여움, 괴로움, 두려움,슬픔이 다섯가지 감정을 지나치게 갖는 것은 生命에 害惡이 된다. 심한 추위나 더위, 건조하, 습함, 바람, 비, 안개 이 일곱가지 요인이 신체의 精氣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生明에 해가된다. 그러므로 養生이란 근본적으로 '疾病의 원인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근본을 알기만 하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즉, 외부적 요인에 의해 상처를 입은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질병에 관한 원인을 크게 세가지로보면 즉, ①기의 부조화, ②밖에서 몸안으로 모자라게(虛) 또는 넘치게(實) 들어오는 7가지 감정의 부조화로 인하여 스스로 발생하는 것, 그리고 ③자연의 순리를 벗어난 습관으로부터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風), 추위(寒), 더위(暑), 습기(濕), 건조(燥), 불기운(火)이 있으며 몸안의 일곱가지의 감정(內上七精)은 勞, 喜, 思, 憂, 悲, 恐, 驚으로 이 일곱 가지의 감정과 오장과의 관계를 보면 화가 나면 간을 상하고 기가 위로 올라가고 기쁘면 심장이 상하고 기가 늘어지고, 생각은 비장을 상하고 기가 막히게 한다. 슬픔과 걱정은

○ 태양인의 성품과 기질은 항상 앞으로 나가려 하고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
소양인의 성품과 기질은 항상 움직이려 하고 가만히 앉으려 하지 않는다.
태음인의 성품과 기질은 항상 고요하려 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소음인의 성품과 기질은 항상 거처에 있으려 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 태양인의 앞으로 나가는 것은 그 역량이 앞으로 나갈 만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재주를 돌이켜 보아서 그 재주가 씩씩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소양인의 행동은 그 역량이 행동할 만한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힘을 돌이켜 보아서 그 힘이 확실치 못하면 행동할 수 없는 것이다.
태음인이 고요함은 그 역량이 고요할 만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돌이켜 보아서 그 지혜가 주밀하지 못하면 고요할 수 없는 것이다.
소음인의 거처해 있는 것은 그 역량이 거처해 있을 만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돌이켜 보아서 그 계획이 넓지 못하면 거처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태양인의 정기(精氣)는 항상 양이 되고자 하고 음이 되려고 하지 않으며,
소음인의 정기는 항상 음이 되고자 하고 양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소양인의 정기는 항상 밖에서 이기고자 하고 안에서 지키려 하지 않으며,
태음인의 정기는 항상 안에서 지키려 하고 밖에서 이기려 들지 않는다.

○ 태양인은 비록 양이 되기를 좋아하지만 또한 때로는 음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 만일 전혀 양이 되는 것만을 좋아한다면 멋대로 구는 마음이 반드시 지나칠 것이다.
소음인은 비록 음이 되기를 좋아하지만 또한 때로는 양이 되는 것도 마땅하다.
만일 전혀 음이 되는 것만을 좋아한다면 편안한 것만을 구하는 마음이 반드시 지나칠 것이다.
소양인은 비록 밖에서 이기고자 하지만 또한 때로는 안에서 지키는 것도 마땅하다. 만일 전혀 밖에서 이기는 것만 좋아한다면 편벽되고 사사로운 마음이 반드시 지나칠 것이다.
태음인은 비록 안에서 지키는 것을 좋아하지만 또한 밖에서 이기는 것도 마땅하다. 만일 전혀 안에서 지키는 것만을 좋아한다면 물욕을 탐내는 마음이 반드시 지나칠 것이다.

<동의수세보원>확충론

허파를 상하고 기가 삭아 없어지고 두려움과 놀람은 콩팥을 상하게 한다. 두려우면 기가 내려가고 놀라면 기가 흐트러져 질병을 일으킨다고 한다.

3) 간호관

앞장에서 한국의료사상에 근거한 우주관, 인간관(신체관, 생명관, 건강관, 질병관)을 고찰한 결과에 따른 간호관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한국적인 '간호'란 무엇인가라는 관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간(看)'은 눈(目)위에 손(手)을 얹어서 적극적으로 상대를 관찰한다는 뜻이며, '호(護)'란 손안에 잡혀 두리번거리는 새를 되도록 따뜻한 말로 안심시킨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에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즉 병의 원인이야 어떻던간에 일단 「환자를 적극적으로 돌본다」는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병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환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려 평온을 되찾아 준다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돌봐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병고에 신음하고 있는 환자의 어그러진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우선 사상체질론의 입장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과 같이 체질에 따라 음양의 조화를 잃을 수 있는 병들이 위와 같기 때문에 간호인은 마땅히 간호대상자 개개인의 특성(체질)을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반드시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어그러진 감정의 관리하는 측면을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체질에 기인한 병통일 수 있으니 태양인의 노여움, 소양인의 슬픔, 태음인의 즐거움, 소음인의 기쁨 등 체질과 감정을 연결 지어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보았으며 심지어 섭생에 이르기까지도 생명의 네 가지 유형과 연관지어 보살펴야 된다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적 간호의 특성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체질에 따른 氣를 관찰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도록 살피고, 선천적인, 후천적인 습성에서 쌓인 편벽된 감정에서 벗어나 평인(平人)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守心正氣'로 정의할 수 있다.

3. 한국적 간호중재개발을 위한 대체요법

앞장에서 서술한 내용, 즉 인간을 天人合一 또는 天人相應의 입장에서 총체적인 존재로 여기며, 호흡(양)과 섭생(음)으로 유지되는 생명(목숨)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항상 천지의 氣와 인간과의 교섭에서의 바람직한 조화가 추구되었으며 이런 음양조화의 추구라는 큰 틀 속에서 종래의 한국간호중재 대체요법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있어온 대체요법을 간호요법화 시키는 것이 한국간호이론 개발에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 일단 이를 정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체요법의 정의, 유형, 그리고 기능 및 효능을 서술하고자 한다.

① 정의

대체요법은 국외의 경우 'Alternative Therapy' 또는 'Complementary Therapy', 그 밖에 'Mind-Body Health', 'Natural Care', 'Alternative Medicine', 'Holistic Nursing', 'Alternative modalities' 등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 요법(Alternative Therapy)은 "전통적인 의학 공동체에서 승인하지 않은 건강을 위한 중재법"으로 전통적인 주류의 건강 관리에서 벗어나, 의약, 기도, 마사지, 부적, 그리고 민간 치료 등까지 포함하되, 그런 방법들에 국한되지는 않는 건강 요법들. 보완 요법이라는 용어는 대체 요법이라는 용어와 교대로 쓰여, 이러한 요법이 전통적인 요법을 지원하거나 보충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Vickers, 1993). 보완 요법(Complementary Therapy)은 더해졌을 때 완전한 전체를 이루는(옥스포드 영어 사전) 요법으로 단일한 요법(예: 침)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이것이 다른 요법(예; 항암요법)과 서로 조정 중재되면, 둘은 상호 보완을 이룰 수 있(Vickers, 1993)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체(보완)요법은 우리 나라의 경우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니며 민속전통에서부터 발생하여 문화유산의 일부로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으나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② 유형

국내외의 대체(보완)요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③ 대체요법의 기능과 효능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체요법은 인간을 정·기·신의 구성으로 보고 음양오행과 기인론을 적용하여 몸의 부족한 기운을 북돋고 넘치는 기운을 가라앉혀 기의 균형을 조화롭게 만들고자하는 요법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으며 마음의 평정, 수면, 호흡, 식이와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자 했던 방법으로 기능과 효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 외	국 내
Body Work	
• Acupressure	지압
• Alexander Technique	해수욕
• Craniosacral Therapy	한증
• Hydrotherapy	안마
• Massage	봉침요법
• Reflexology	지압
• Rolfing	
• Tai Chi	
• Yoga	
Dietary and Herbal Remedies	음양오행식이
• Regulatory Issues	생식
• Dietary Supplements	효소식이
• Fasting and Juice Therapies	약초법
• Flower Remedies	호박(이뇨 작용)
• Herbal Medicine	숯가루요법
• Macrobiotics	소변요법
• Vegetarianism	마늘요법
External Energy Forces	
• Crystal Healing	기도
• Electromahnetic Therapies	기공
• Faith Healing	굿거리
• Light Therapy	
• Prayes and Spirituality	
• Shamanism	
• Therapeutic Touch	
The Senses	메밀껍질벼개
• Aromatherapy	박하향요법
• Art Therapy	국화꽃잎벼개
• Dance Therapy	
Traditional healing Techniques	
· Acupuncture	수지침/ 체침
· Ayurveda	쑥뜸
· Chinese Medicine, Traditional	
· Homeopathy	
· Native American Healing	
· Naturopathic Medicine	
Using the Mind	
· Biofeedback	와선
· Hypnosis	동선
· Kirlian Photography	좌선
· Meditation	단전호흡
· Placebo Effect	
· Qigong	

이러한 대체요법은 간호현장 어디에서나 손쉽게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지역중심의 간호를 담당할 간호센터(암환자 간호, 호스피스 등) 에서 간호요법 Nursing Therapy)화 함으로서 간호사 중심의 중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될 것이다.

기존의 간호중재를 보면 대상자가 만일 두통을 호소하였을 때 대부분의 간호사는 활력증후와 혈압을 측정하고, 평소의 두통여부를 확인하며 대상자 기록지에 두통

종류	기능	효능
쑥뜸	• 겉에서 자극하는 요법으로 경맥을 통하게 하고 찬기운을 없애고 기혈조화를 이룬다. • 피부나 근육조직을 건드려 병을 고치는 생체의 자연치유력을 활발히 하여 체내의 저항력을 일러다. • 피부→온열적 자극→생체반응 →생체에 나타난 변조를 바르게 하고 질병치료에 힘이 더 나게하는 방법. 몸안의 면역물질을 만들고 저항력↑ →예방. 낫게 하고 내장의 기능을 고르게 한다. 유형; 유혼구 무혼구: 지연구, 권구, 소금뜸, 된장뜸, 마늘뜸, 쑥	• 뜸의 효능 몸의 기능을 조정. 병을 회복시키는 힘을 주는 전조요법으로 가치가 있다. 세포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짐. 임파의 흐름을 좋게 하여 해독작용을 돕는다. RBC↑ WBC↑ 지혈작용 면역작용
수지침	• 손은 사람의 축소판(상응관계) • 손가락은 오장과 밀접한 관계 간(1), 심(2), 비(3), 폐(4), 신(5) • 손에는 내장기능을 조절하는 14기맥이 있다.	상동
음양오행식이	• 음식의 性에 따라 음·양, 쓴맛, 신맛, 단맛, 매운맛 짠맛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체질개선
단전호흡	• 배꼽아래 단전과 명문에 의식을 집중하여 하는 호흡법	뇌신경세포발달, 촉진 기혈순환촉진 수승하강(水昇下降) 기질변화 성격개조
지압	• 경락상에 지압점을 누루므로써 기의 규형을 이루고자 함	혈압하강 긴장완화 근육의 관절경직, 통증완화 피부의 순환tone 탄력성 증조 수면장애 무기력완화

약의 지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대상자가 원하면 약물을 투여하고 상황을 의사에게 보고할 것이다. 그러나 대체요법을 적용한 간호중재는 두통완화를 위하여 수지침 또는 지압을 시도한 뒤에 통증이 완화되지 않으면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독립적인 간호중재뿐 아니라 중재의 폭을 넓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자는 수지침, 쑥뜸을 이용하여 자궁적출술을 한 중년여성의 요통완화를 위한 효율성을 검증한 결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의 완화는 물론이고 객관적인 통증척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신경림, 1998). 이와같이 대체요법은 두통이외에도 신생아의 수면장애, 산후조리, 생리통, 요통, 관절염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대체요법은 한국간호의 전통성, 역사성, 그리고 독창성을 살릴 수 있는 간호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적 간호중재개발을 위한 대체요법의 적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서구간호교육의 영향하에 전개된 기존의 간호중재는 분석적이고 기계론적인 생명관을 중시한 반면 한국적 간호이론에 근거한 중재는 인간을 유기적 생명체로 보고 총체적인 간호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최근까지 이루어진 간호가 무시되어져서도 안되고 또한 한국 전통에 근거한 간호가 간과되어져서도 안된다. 미래에는 동양과 서양의 간호의 통합을 이루어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간호교육은 대체요법을 위한 교육과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해야 하며 간호연

구는 질적, 양적연구를 장려하여 대체요법의 과학성을 규명하고 지지해야되며 간호실무에서도 대체요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려시대에 있어서의 과거제도 중 잡과 시험은 의업(醫業)과 주금업, 두 방면 이었으며 그 과목 역시도 서로 달랐다. 예를 들면 의업과목은 <소문경><본초경><명광경><침경><난경><구경>이었음에 비하여 주금업 과목은 <맥경><류연자방><창저론>침경><본초경><명당경>이었음을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동의보감> 내경편 신형 반운복식
<동의보감> 내경편 신형 안마도인법
<동의보감> 내경편 신형 양생요결
<동의보감> 내경편 신형 양성금기
<황제내경> 금궤진언론
<황제내경> 종시편
<황제내경> 소문
<황제내경> 백병시생편
<동의수세보원> 확충론
이을호 (1993). 사람과 자연은 하나다. 지식산업사
이시다하데미, 이동철 옮김 (1996). 기. 열린책들
신경림 (1997). 한국간호이론 정립을 위한 연구 I, 대한간호학회지 27(1)
신경림 (1998). 폐경여성의 몸의 변화에 관한 체험연구, 대한간호학회지예정
신경림 (출판예정). 자궁적출술을 경험한 중년여성의 현상학적 연구.
신경림 (출판예정). 자궁적출술을 경험한 중년여성의 수지침, 뜸요법의 요통 완화 효율성 연구
마루야마 도시아끼, 박희준 옮김 (1992). 氣란 무엇인가, 정신세계사.
권일찬 (1999). 組織論에서 五行人의 의미와 유용성, 한국정신과학학회지 3(1).
Hill, C. F. (1995). Massage in intensive care nursing : a literature review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3: 2, 100-104
Vickers, A. (1996) Complementary Medicine London: Chapman & Hall

-Abstracts-

Key concept : Korean Nursing intervention., Alternative

The Development of Korean Nursing Alternative

*Shin, Kyong Rim**

Nursing is a discipline that helps to understand human being, to mitigate pains in life by promoting and recovering health, and to study the basic principles in sustaining and preserving life. To understand man and thus to nurse, it is essential to take the way of life of the specific person, his/her ideas, and natural environment into consideration. This means, the temperament, geography, environment and society peculiar to Korea have formed its own culture distinguished from those of other people. Thoughts and philosophy develop as a products of the specific culture and society. Theref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of nursing in the traditional thoughts and philosophy is indispensible to define Korean nursing. Modern Korean nursing at first rooted in the westernized nursing and western nursing intervention has been applied ever since its introduc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under the paradigm of western natural science.

However, Koreans in the past made use of alternative therapy which put its emphasis on the organic and holistic view of life as well as a means for traditional medicine and nursing. This alternative therapy has been largely ignored since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edical science, and was considered something used only by the aged or the uneducated. Moreover, Health concerned practices and customary traditional therapy have been discarded in the clinical medicine as "unscientific" or "unsystematic".

As described above, it is true that Korean nursing has developed in the quantitative aspect

only adhering to western nursing intervention.

*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Science,

Now it is the time to stop to hold ourself and to look back our past. To find and develop the originality of Korean nursing to cope with the globalization, it is necessary to rediscover nursing (alternative) therapy in Korean culture ignored so fa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oriental philosophy to explore alternative nursing theory now under development. Also it aims to present ways to apply alternative therapy to nursing education,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s and ultimately to show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nursing to go in the future.

Yangsaeng theory of Taoism and Yin-yang, Oh-hang(five elements) and khi theory in Dongeuibogam which gave enormous influences on Korean medical culture and treatment together with Sahsang(four temperaments) emphasized in Dongeuisusebowon will be examined as conceptual framework. Concepts of nursing are categorized into views on each the universe, the human being and nursing. Views on human being is classified into subcategories of body, life, health, and disease. Also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including alternative therapy in nursing intervention. Views on the universe is classified into yin-yang, khi, and temperament. Nursing will be available anywhere and easily accessible with this new nursing intervention. Trying to give a new thoughts to all those traditional concepts and alternative therapy, this article suggest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original Korean nursing theory and nursing intervention.